
2021년 제9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2. 26. ~ 3. 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2. 26.	시청률	0.010

【총 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대학졸업식, 비대면 예배, 간편한 요리 등 변화된 일상을 짚어본 기획이 공감도를 높였다. 글로벌 리포트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바뀐 호주와 독일의 교포 생활상을 담아 기획성, 심층성, 다양성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코로나 간편음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밀키트의 가격 부담이 크다는 소비자 불만을 제기한 리포트가 환경감시 차원에서 언론의 역할을 했다. 이 밖에 정월 대보름날을 맞아 부럼깨기, 귀밝이술, 오곡밥, 더위 팔기 등 다양한 세시풍속을 소개하며 가족과 함께 소망을 빌어보길 권하는 시의성 있는 멘트가 정겹게 다가왔다.

【구성 및 내용】

- 코로나19 속 온라인 대학 졸업식 "아쉬워요"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올해 대학가는 온라인 졸업식이나 기념사진으로 졸업식 행사를 대신하고 있다. 일부 학생만 졸업식에 참여하는 등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가 졸업식 소식을 전했는데 여러 가지 달라진 풍경을 세밀하게 담아냈고 졸업생과 학부모의 인터뷰를 통해 아쉬운 느낌을 잘 표현해냈다.
- 방역 솔선 '교회' 비대면 예배 익숙해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에도 일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종교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에 참가하고 있다.
- 호주 멜버른, 한글학교 1년 만에 대면 수업 시작
한글학교가 1년 만에 대면수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져 좋았고 며칠 후면 우리도 대면수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으로 연계가 잘 이뤄졌다.
- 코로나19 장기화...독일 교포의 바뀐 일상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 동포들의 일상까지 변화했다. 독일동포의 경우 봉쇄조치로 인해 시작된 재택근무는 어느새 일상이 되었고 익숙해졌다. 아직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새봄이 찾아왔어요" 경주 동식물원 '동궁원'
경주 동궁원은 신라시대의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동식물원이다. 동궁원은 열대식물과 아름다운 새, 희귀곤충을 만나볼 수 있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대서양 연어' 양식...동해안에서 키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대서양 연어가 양식이 가능해졌다. 강원도 고성 의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는 대형수조마다 연어가 가득한데 3년여의 노력 끝에 양식에 성공했다.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2. 27.	시청률	0.118

【총 평】

‘남한강 물결 위로 역사는 흐르고’ 편에서는 남한강을 끼고 청정 자연을 품은 경기도 여주의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탐방했다. 세종대왕 영릉, 명성황후 생가를 중심으로 세종대왕의 업적, 명성황후의 역사적 재평가 등을 바탕으로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한 점이 돋보였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해 농업, 과학, 음악 분야의 업적이 상세히 소개됐고, 명성황후가 조선의 국모로서 개방과 개혁 시대 위기를 극복해낸 점이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이 밖에 여주의 특산물 옹기에 대해 만드는 과정과 3대가 전통 명맥을 잇는 옹기장의 스토리를 흥미롭게 담았고 여주의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신록사, 강천보, 여주보, 파사성, 영월공원 등을 소개한 점도 관광정보로서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남한강이 젖줄처럼 흐르고 있는 여주의 역사와 유산을 만나보았다. 세종대왕릉 및 전시관을 통해 세종대왕에 대해 소개했고 여주 파사성, 영월공원, 그리고 여주의 3대보인 강천보와 여주보, 이포보를 비롯하여 명성황후기념관 등 주요 명소를 살펴보고 여주의 특산품인 옹기에 대해 김일만 옹기장의 작업장과 여주도자문화센터를 둘러보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릉은 조선왕릉 중 최초의 합장릉으로 세종과 소헌왕후의 무덤이다. 특히 잔디속에 왕의 무덤을 모셔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는 조상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로서 완성되었다. 된다.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서 ‘월인석보’, ‘세종대왕실록’ 등의 서책을 볼 수 있었다.

여주파사성은 파사산 정상을 중심으로 축조된 산성으로 남한강을 통해 침입하는 외적을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여주의 3대보는 자전거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 강천보는 황포돛배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여주보는 세종 때의 물시계인 자격루를 본떠 상부기둥을 만들었다. 이포보는 생명의 탄생과 비상을 상징하는 백로의 날개 위에 알을 올려놓은 형상을 담았다.

명성황후기념관은 명성황후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게끔 조성되었다. 명성황후와 고종의 영정도 모셔져 있으며, 감고당은 명성황후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다.

옹은 독이라는 한자어의 우리말로 독은 선사시대부터 만들어져 음식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옹기는 항아리, 장독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하기도 하다. 김일만 옹기장은 옹기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특히 굽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한다. 여주 신록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는데, 여타 사찰과는 달리 강변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문화재를 품고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2. 27.	시청률	0.070

【총 평】

‘Now 北’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인도적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이유, ‘단박톡’은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 씨의 한반도 평화 이야기로 구성했다. ‘Now 北’은 대북제재 물품부터 시작해서 인도적 대북제재 완화 조치의 가능성과 해결책까지 모색해 보았다. ‘단박톡’은 팝페라 테너 임형주의 활동과 평화와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방송했다.

특히, ‘Now 北’의 인도적 대북제재라는 무게 있는 사안을 너무 무겁지 않게만 기승전결이 눈에 띄게 좋았다. 대북제재 물품에 대한 퀴즈로 흥미를 유발하면서, 대북제재의 배경과 이유, 그리고 북한의 현재 상황과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노력과 향후 과제까지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살핀 점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Now 北’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인도적 대북제재 완화 언급 이유를 세세하게 분석해 보았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북제재의 필요성과 완화 가능성, 현시점에서 대북완화 조치가 필요한 이유, 인도적 대북제재 접점과 조건은 무엇인지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특히, 호미와 나사못 등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물품들을 나열해놓고 이들의 공통점을 찾는 퀴즈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호미와 나사못 등이 대북제재 물품이라 놀랍기도 했고 현재의 대북제재가 얼마나 간간한지 새삼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었다.

이인영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유연한 대북제재의 필요성과 더불어 현재 가장 시급한 의료용품 지원쪽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어 공감을 얻었다. 대북제재의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의 몫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함으로써 대북제재의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하게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질환이 동물로부터 확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집단면역을 위해 의료용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설득력이 높았다. 그렇지만 대북제재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자초한 일이라는 메시지도 언급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로 접근한 것이 가장 돋보였다. 또한, 그 해결책으로 북한 주민의 민생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안정화할 제재 완화로 결론을 내려 설득력을 얻었다.

‘단박톡’은 세계적인 예술가, 팝페라 테너 임형주 씨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얘기를 나눈 특별한 시간이었다. 임진강 공연과 서해 5도 탐방기, 북한 출신 팝페라 가수 명성희 씨와의 에피소드 등 많은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대로 심어주고 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강조한 특별한 시간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족은 한 집에 모여서 살아야 한다’는 임형주 테너의 한 마디가 많은 여운을 남겼다. 정치가도 정책가도 아닌 현직 예술인이 시각에서 바라본 “남북 평화는 반드시 온다.”는 말은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고, 기대감과 설득력을 주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2. 28.	시청률	0.171

【총 평】

‘날마다 생일이야라, 생일도 섬마을 부부’는 가고 싶은 섬 ‘생일도’에서 미역과 전복을 양식하고 식당과 펜션일도 겸하는 억척부부의 섬생활 ‘소확행’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전남 완도의 생일도에 정착한 동기, 미역과 전복 양식, 만족스런 제2인생 등이 단락별로 이어져 흡인력을 높였다. 특히, 바다에서 10년째 제2인생을 사는 어촌 부부가 바다양식장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전복을 양식하며 얻는 행복과 만족감이 대화와 표정에서 잘 표현됐다. 경기도 가평을 떠나 생일도에 정착하게 된 동기와 과정이 부부의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났고, 섬생활의 이점이 소개돼 귀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를 했다.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일도에 기대 삶을 일궈가는 주인공 부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좋은 영상 덕에 남녘 바다의 정취에 흠뻑 빠져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구성 및 내용】

전남 완도 당목항에서 생일도로 들어가는 상황을 보여줬는데 섬 기행을 시작하는 길잡이 같은 느낌을 준 좋은 도입부였다. 바다에서의 미역 및 전복 작업, 귀어 당시의 이야기, 육지에서의 펜션 준비 작업, 미역의 포장, 마을 친구들 등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는 억지스럽지 않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 선선하게 다가오는 효과가 있었다.

바다에서 10년째 제2인생을 사는 어촌 부부가 바다양식장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전복을 양식하며 얻는 행복과 만족감이 대화와 표정에서 잘 표현됐다. 미역자랑이 끊이질 않는 부부는 곰피미역부터 다양한 해초를 양식하고 있다.

특히 부인은 “바다가 너무 좋아 도시로는 못가겠다”, “미역이 곧 자식이다” 등 긍정적 만족감을 드러냈다. 미역이나 전복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미역꽃을 장미에 비유하는 이야기에서 섬 생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미역, 전복 양식 외에도 생일도에서 식당과 펜션을 운영 중이다. 현재는 비수기이지만 성수기를 대비하고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과 담백하게 털어놓는 이야기 그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표정 등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표출해낸 점이 좋았다. 과하지 않게 절제된 그리고 상황에 맞는 표현이 담긴 내레이션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생일도(生日島)’라는 지명을 살려 ‘날마다 생일이야라, 생일도 섬마을 부부’로 타이틀을 낸 점이 신선했고, 부듯가에 생일 케이크가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시원한 바닷가, 생일도 밤하늘의 별, 해넘이 모습 등이 시각적 몰입도를 높여 코로나 블루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청량감과 힐링을 선사한 부분이 뛰어났다. 또한, 생일도의 풍광을 다양한 각도로 잡아내 봄이 다가오고 있는 바다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특히 타임랩스 영상과 드론을 활용한 영상은 감각적인 터치가 돋보였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2. 28.	시청률	0.007

【총 평】

‘지역균형 뉴딜 - 경상남도·제주도’는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경상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인 가덕공항 신공항의 필요성과 교통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필요한 정부의 법과 제도 등 지원 사안에 대해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어, 그린뉴딜의 필요성과 개선점,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다. 특히, 경남권 청년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경남도 정책, 경남도의 메가시티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구성 및 내용】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 불리는 한국판 뉴딜(New Deal)을 통해 정부는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큰 경남, 더 깨끗한 제주”를 위해 공간을 확장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로 패러다임을 바꾼 지역,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과 대한민국을 확장하고 발전시켜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계획을 정리하고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더 크고 더 깨끗한 모빌리티 중심의 지역 균형 뉴딜정책을 소개하였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구하는 경상남도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핵심은 ‘압축’과 ‘연결’이라는 “하나의 수도권 만들기”였다. 창원-부산-울산이라는 대도시 기능을 압축하고, 김해-진주 같은 소도시 기능을 연결하여 거대 광역권 형성과 공간 확장에 기여하겠다는 경남 개발 계획 아이디어가 빛났다. 3단계로 진행할 정책 내용, 교통망 구축, 2040년까지 마무리 될 부울경 통합 전략, 이해관계 해결 등 계획 실천하기 위한 선조건, 부울경이 상생하기 위한 고민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제주도는 전기택시가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기사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 택시를 선택한 이유가 꽤 설득력 있게 들렸고, 연도별 제주 전기차 등록대수와 2030년까지 100% 전기차와 수소차를 운영하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제주도의 현재 전기차 보급 실태와 향후 계획, 제주와 서울의 전기차 비중 지표 등을 준비해 제주도가 친환경 뉴딜에 얼마나 준비가 되었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잘 드러났다.

국내 1호 민간 전기차 충전 기업의 대표가 충전 인프라 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일관성 있는 도의 정책과 지원을 높이 평가했고, 향후 한전이 기본료를 높이게 될 경우 수익 창출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배터리 재활용 등 2차 3차 연동산업의 필요성까지 언급해 굉장히 심도 있는 인터뷰가 되었다. 또, 출력제한의 문제를 들어 국가와 제주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것이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라고 깔끔하게 방향도 제시하면서 마무리했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3. 3.	시청률	0.079

【총 평】

백신접종 후 사망사례를 톱뉴스로 배치하면서 당국의 대응책과 백신주사 전 주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특히, 백신주사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전문가의 팩트체크 인터뷰를 통해 바로잡기에 나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조기에 불식시켰다.

또한, 코로나 방역과 청년고용 지원 등 핫이슈를 연이어 깊이있게 보도한 심층성이 돋보였다. 특히, 청년고용 지원의 경우 청년 채용 인센티브, 공공일자리 창출, 디지털 훈련 확대, 맞춤형 고용 지원방안을 상세히 보도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특집뉴스답게 주요뉴스를 비롯해 경제뉴스, 가짜뉴스 팩트체크, 오늘의 브리핑, <S&NEWS>, 브리핑 타임 등 각종 코너를 통해 코로나 관련 뉴스를 다양하고 깊이있게 보도한 구성이 돋보였다. 백신접종 후 부작용 사례와 청년일자리 등 중요 이슈를 집중배치해 심층분석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충족시켰다. '청년고용 104만 명 지원...공공일자리 3만 개 창출', '청년 디지털 훈련 확대...맞춤형 고용지원' 등 절벽으로 내몰린 청년고용 문제를 다루었는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포인트를 내용적으로 잘 정리한 퀄리티 있는 기획리포트였다.

'8대 소비쿠폰 지원, 스마트상점 10만 개 구축'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산업 지원에 나서는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공급하고 서비스산업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또, 항공업계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초부터 직격탄을 맞아 정부가 항공업계 고용유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의 집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다는 사업이 진행된다. 또,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제주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육지로 보내는 지역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나무 4천800만 그루를 심기로 했으며 기온상승을 고려하여 식목일 3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가짜 뉴스에 대한 리포트는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전제하고 왜 그런지 다양한 전문가의 코멘트를 통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내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기여했다.

<S&NEWS>는 수용자 니즈와 트렌드를 '코로나 속 김치파워'를 비롯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보기 힘든 치느님', 에너지 자립도시로 육성되는 전북 새만금 '기적의 간척지' 등이 다루어 관심을 유발했다. 특히, '#김치가 코로나 회복제?'는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김치를 먹는다는 기사를 화두로 중국의 김치공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구성에 계산이 서있는 스토리텔링이었다.

프로그램	KTV 뉴스중심		
방송일자	2020. 3. 4.	시청률	0.015

【총 평】

코로나19 신규 확진 소식에 이어 화이자 백신 정식 품목허가, LH 직원 투기 의혹 '발본색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여성일자리 78만 개 창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한 뉴스를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경과에 관한 질병관리청의 브리핑과 주요 정책 현안 관련 총리실 브리핑을 방송했다. 국무총리와 기자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LH 의혹 합동조사단, 변 하사 사망 관련 성전환자 군복무 제도, 미얀마 사태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여성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 가족부의 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돌보미 비용 지원 등의 대책에 관한 소식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였다.

【구성 및 내용】

- 신규확진 424명... "방역 취약지점 검사 확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기록하며, 봄철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방역당국은 특정 취약 지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위험요인을 겨냥해 관리하고 있어, 확실한 안정세로 돌아서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식약처, 내일 화이자 백신 정식 품목허가 결정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 오전 10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3중 외부 전문가 자문 절차 마지막 단계, 최종점검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 '발본색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 여성일자리 78만 개 창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도입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특별고용촉진금을 주는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도입한다.
- 한미, 내일 방위비 대면협상... "상당한 공감 이뤄"
한미 양국이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방위비 협상을 진행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협상에 새 동력을 얻은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 한미가 13% 인상,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3. 4.	시청률	0.050

【총 평】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3%전망에 대한 배경과 의미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선행요건인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으로 시청자의 경제현안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선행요건인 코로나19 현황과 대응을 세계와 우리나라로 나누어 살펴보고, 현재 백신접종이 진행중이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올해 고용상황, 소비자물가, 수출과 소비 등 경제여건을 분야별로 집중 분석한 점이 시청자 이해를 도왔고, 경기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외 추가 경기부양책, IT와 반도체 수출회복세, 서비스업 증가 등 희망적 요소를 제시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내 경제의 침체가 언제쯤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금리라는 변수 그리고 민간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중심으로 알아봤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현재 한국경제가 위치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지속하려면 백신접종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경제회복세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선부른 기대감을 경계하고 계속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었다.

한국은행의 국내 경제성장률 3% 전망 배경을 살펴보면 민간소비 위축이 주요 이유이다. 민간소비는 건설, 설비투자의 경우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며 수출은 IT,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 있어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진은 우려가 될 만한 상황으로 소비의 경우 백신의 효과가 확실하다면 빨리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은 그렇지 못하다. 21년 상반기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백신 효과 등으로 인해 26만개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막혀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백신여권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다. 수출 중심으로 이뤄진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의 위기라는 맥락 속에서 설명해 전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부문별로 정확하게 짚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금리를 연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한편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귀담아들을만한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선 민간소비가 살아나야 한다는 점과 극심한 고용침체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우리 경제가 헤쳐나가야 할 난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했다.